

# 실존주의 문학론

배경열\*

## 1. 연구방향 제기

실존주의 철학은 불가지론(不可知論)이라는 수식어가 더해질 만큼 다양성과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 용어의 난해성은 물론, 개별사상가의 철학적 사변의 추이에 다변성을 보여주기도 하며, 실존주의 철학가라는 명명법을 부인하기도 한다. 하이데거나 야스퍼스, 마스켈 같은 철학자는 실존철학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거부했고, 사르트르만이 실존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집했다. 실존주의 사상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라는 두 개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sup>1)</sup>에서 야스퍼스와 가브리엘 마르셀을 전자에, 하이데거와 메를로 퐁티, 시몬느 드 보봐르 그리고 사르트르 자신을 후자에 귀속시키고 있다. 실존주의 문학의 사상적 토대가 된 실존주의 철학은 1930년대 독일에서 형성되었으며 키에르케고르에 의해 정리되었다. 키에르케고르는 역설 변증법에 의해 실존의 단계를 3단계로 제시하였다. ①향락 속에서 자기를 찾는 미적 실존 ②양심에 의해서 자기를 지키는 윤리적 실존 ③신앙에 의해서 본래적 자기를 찾으려는 종교적 실존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실존과 실존적 사고와 주체적 진리를 역설하면서 현대철학과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상실한 자기 회복의 노력이라는 실

---

\* 박사과정 수료

1) J.P. Sartre,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방곡 역(문예출판사, 1998), pp.10-11.

존사상을 축으로 하여 모순과 갈등에서 비롯된 부조리의 인간존재에 의한 불안과 절망 등 심층 심리의 분석은 마침내 두 가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동기가 된다. 그 하나는 현상학적 존재론을 주장한 하이데거, 실존주의 한계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한 야스퍼스의 실존철학과 발트신학의 성립, 그리고 릴케와 카프카 등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으며, 또 하나는 사르트르, 까뮈의 실존주의 문학을 짚어준 점이다.

실존주의 철학은 훗설을 중심으로한 현상학적 계보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사상적 원류를 '생의 철학'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19C말부터 20C초에 이르는 니이체와 달타이의 '생철학'은 현존성의 영역인 삶의 궁극적인 의의로부터 이를 구성하는 존재형태들에 대한 의의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해명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었다. 더욱이 제2차 세계 대전은 르네상스운동으로 복원된 인간적 신뢰와 산업혁명으로 이룩한 문화 발전의 모형, 그에 따르는 기성세대들이 소유했던 권위를 일시에 불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존성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의 제거와 극복은 시대의 당면과제로 부상했으며, 일체의 전통요소들을 배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실존상실을 위기로 지적하고 운명으로 제기된 상황을 주체성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해석학적 설명의 매력은 현대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반인의 인식전환과 존재론적 사상의 대두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보편성을 반영하는 문학으로 전이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성의 예술과 문화적 이념을 부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다다이즘과, 파괴와 초월을 통해 이질적 현상을 창출하려던 초현실주의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실존주의 문학의 태동이 그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존주의 문학은 키에르케고르, 훗설, 하이데거, 야스퍼스로 이어지는 실존주의 사상을 토대로 불란서를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실존주의 철학사상을 문학에 접목시킨 사람은 사르트르와 까뮈이다. 실존주의 문학을 창조한 사르트르는 문학의 궁극적 가치를 그것의 정치/사회성에 두고 있다. 문학은 일종의 사회참여 양식이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문학은 필연적으로 참여 문학이다. 따라서 문학의 기능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고 따라서 한 문학적 가치도 그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사르트르는 문학을 통해서 실존주의적 진리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라 사회와 각 개인의 삶을 해방코자 했다.

까뮈는 빈곤과 병고를 철저히 체험한 소년시절부터 끊임없이 죽음의 관념에 위협 당하며 생과 사, 자신과 세계와의 모순, 대립에 괴로워했다. 삶에의 절망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부조리의 철학'은 이러한 인식에 바탕하여 인간은 싸우고 반항하면서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사상이다. 커다란 바위를 끊임 없이 오르려는 「시지프스의 신화」와 마지막까지 자기를 배반하기를 거부한 남자의 이야기인 「이방인」은 까뮈가 창조해 낸 부조리 인간의 전형(피르소),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실존주의 문학에서 사르트르, 까뮈라는 다소 이질적 형태의 작가들을 접한다. 실존주의의 유입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작가의 개별성이 한국의 전후상황에 어떻게 융화, 수용되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곧 한국실존주의 소설의 특징을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 2. 실존철학과 문학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존상실을 위기로 지적하고 자아각성을 촉구한 실존주의의 영향력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수세기 동안 사회를 지배하던 과학적 체계와 도덕적 가치관, 우주관, 종교관 등의 개념은 존재가 위협받는 삶의 허무성을 위무하기에는 시대성을 상실한 것이었다. 실존주의는 본질철학인 형이상학 이론과는 상대적으로 '실존'을 강조한다. 사물의 변화 속에서도 불변성을 지니는 본질에 관한 사유보다도 실제로 눈앞에 현존하는 것을 중시했던 존재론은 결국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철학과 문학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성찰과 문제해결이라는 기본향이 역사의식과 결부되어 자연스럽게 출현했다고 할 것이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하에 행동적 휴머니즘의 경향으로 철학의 문학적 이론화에 기여한 사르트르의 활동은 기존의 문학과 철학과의 연계성 여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며 주체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철학이론의 성격상 문학적 기술방법론의 선택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 「상상력」, 「정서

론」의 몇 편 철학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문학작품으로서 실존주의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적을 신학에 두고 기독교의 신에 거점한 키에르케고르에 있어서도 서술적 방법은 철학이라기보다는 문학에 속한다.<sup>2)</sup> 또한 니체, 베르자예프, 파스칼도 동일한 문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간존재의 의미를 해명하려는 작가의식은 문학작품으로 현현되기에 이른다.

일부 분석철학자들은 이른바 실존주의를 엄격한 의미로서의 철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철학은 체계가 명중한 원칙 혹은 이론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은 대체로 소설, 수필 형식을 빌어 표현되었고 철학적 저서로 나타나는 경우도 표현이 막연하고 이론이 불분명하다. 파스칼 혹은 도스토예프스키, 카프카 또는 까뮈의 실존주의 사상은 문학형식을 차용하여 실존주의적 분위기는 있다하더라도 그 어떤 작품 속에서 이론이 정연한 주장을 찾기 힘들다.<sup>3)</sup> 부조리하고 불확실한 시대적 정황은 이론의 명증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와 인간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했던 것이다.

사르트르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선택의 가능성과 자기창조의 특징이 있으며 인간이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의 세계는 무의미하며 부조리하다고 언술한다. 사르트르의 매력은 세계창조의 주체를 인간에게 두며 인간에 행위와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시지프스의 무익한 수난을 인간 삶의 특징으로 기술하며 부조리의 개념을 제시했던 사르트르의 사상은 니힐리즘 세계를 지향하기보다는 우주적 질서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일상의 허무성과 인생고의 무의미성으로부터의 이탈을 위해 '반항'이란 방법론을 제시했던 까뮈의 사상 역시 지성의 고민에서 유로된 것이다. 자신만을 위한 반항이 아닌 인간의 생명을 위한 반항의 역설은 지극히 휴머니즘적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이를테면, 사르트르,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마르셀 등의 중심 모티프는 삶의 궁극적 문제들을 해명하는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 죽음과 초월, 자유와 책임성, 한계상황과 신의 문제들은 삶의 문제이기에 앞서

2) 원형갑, <실존과 문학의 형이상학>(현대문학, 1959. 8), p.236.

3) 박이문, 「문학속의 철학」(일조각, 1993), p.71.

전후의 상황에서는 현실극복의 해결책이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이자 현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실존주의 사상이 문학적으로 수용되었고 실존주의 작품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사르트르나 까뮈 등은 실존주의 문학에 대한 많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 문학가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존재에 대한 의미탐구의 영역인 실존철학을 문학적으로 기술한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등의 이론서와 「벽」, 「구토」 등의 작품, 까뮈의 「이방인」, 「시지프스의 신화」, 「페스트」 등의 작품은 실존주의 문학의 원전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르트르의 작품 「구토」는 존재에 대한 검증과 인간구원의 가능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벽」에서는 죽음에 대한 부조리의 의식을 주제화하고 있다. '부조리의 철학'으로 대변되는 까뮈는 「이방인」, 「페스트」, 「시지프스의 신화」 등을 통하여 일상의 허무성, 인생고의 무의미성이라는 존재이유의 부재, 즉 부조리의 문제를 제시해 주었다. 이외에 인간의 조건이란 문제를 다룬 앙드레 말로의 「정복자」, 「인간조건」 초인사상을 다룬 도스토예브스키의 「죄와 벌」, 니힐리즘의 문제를 취급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등은 모두 삶의 문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제기하는 철학적 내용들이다. 이와 같이 서양에서 전개된 다종의 철학 이론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 사상이 현대에 와서 이론화 혹은 소설화되는 것을 우연한 현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존적 사상은 주체와 객체, 절대와 상대, 영원과 역사를 융합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sup>4)</sup> 특히 현대문명의 획일화로 파생되는 정신적 불안의 문제, 생의 궁극적인 의문으로 제기되는 죽음의 문제, 삶의 현장에서 출현하는 한계상황과 선택의 문제, 사물화된 인간존재의 무가치성, 소외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현대인의 정신적 구원의 모색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괄하는 철학적 탐색대상의 현존 물이기에 더욱 가치화 된다. 문학이 사회성과 집단적인 전파와 그 변혁의 기틀에 기운다고 해도, 인간존재를 해명하고 그 실존의 의미와 초월을 위한 실존주의 문학은 삶의 실존적 의미해명과 그 초극을 위한 문학적 지향의 목표가 된다.

4) S. de Beauvoir, <문학과 형이상학>, 박이문 역(사상계, 1956. 12), p.114.

### 3. 실존주의 문학론

#### (1) 사르트르와 까뮈의 문학론

사르트르는 하이데거와 후세들의 영향 아래 그 자신의 현상학적 존재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현상학에서의 의식의 지향성에서 비존재의 영역으로의 접근이라는 상상적 의식의 행동을 통해서 의식을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의 능력이라고 규정한다. 의식의 자발성에 의해 창조가 가능하며 창조적인 자유를 위해서 의식의 비실재화가 필요하며 비실재화는 허무를 통해서 가능하다. 사실적인 상태를 무화함으로써 의식의 창조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의식의 무화의 작용이 자유라는 것이다. 자유는 미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데, 그것은 자신을 투기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의 의미가 무화된다. 이에 존재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이게 된다. 자유는 영원히 무화되는 자유이며 이런 존재와 자유의 유동성으로 인해 인간은 고독하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 받은 자"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인이다.<sup>5)</sup> 여기서 부정되는 상황은 자유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사르트르가 현실에서 자유의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구토'를 들 수 있다. 이 '구토'가 작품 「구토」에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불쾌감이며 부조리감이기도 하다. 성실한 인간은 조약돌을 만지다가 종이를 접을 때 다방에서 일상적인 사물들을 보고서 부조리감인 '구토'를 느끼며, 또한 그 느낌을 '근적근적함'을 통해서 발견한다. 이러한 구토의식, 부조리감은 생에 대한 성실성이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그가 자신의 계급인 부르주아에 대한 비판적 의식에서 발견해 낸 것이다. 근대적 합리주의에 젖어 현실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허상 속에서 명예와 행복을 찾는 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은 씌어진 것이다.<sup>6)</sup> 이와 같은 구토를 없애기 위해서는 음악이나 예술과 같은 상상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작품속에서 연연중 상징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이 그의 소설이다.

그는 성실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부조리감에서 자유의 창조성과 존재의

5) 사르트르, 「존재와 무」, 양원달 역(울유문화사, 1968), p.764.

6) 사르트르, 「말」, 원윤수 역(삼성출판사, 1976), p.354.

본질을 발견한다고 한다.) 부조리의 기초가 되는 갈등을 그는 소설이나 연극에서 더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의식은 세계 속에 있는 존재에 대한 부정에서 나온 만큼 현실욕이 강하다.

까뮈는 사르트르에 비해서 보다 문학적이다. 그는 철학적 체계보다는 문학적 형상화라는 구체적 삶의 현장을 통해서 부조리를 표현하려고 한다. 사르트르가 현상학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비해 까뮈는 수필이나 문학작품을 통해서 실존의식을 표현한다. 물론 현상학이나 부조리감을 체험 속에서 발견하고자 한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까뮈는 생에 강조점을 둔다. 그는 철학의 체계 속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며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의 부조리 감을 발견하는데 힘쓰며<sup>7)</sup> 철학보다는 신화를 창조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그의 「시지프스의 신화」이다. 철학적 체계가 아니라 철학적 풍경으로서의 그의 「시지프스의 신화」는 인간 혹은 생명의 문제이다. 거기에서 인간의 생은 형이상학으로서의 신화이다.

까뮈는 현재의 생에서 부조리감을 느낀다. 전쟁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생에 대한 절망에서 부조리감을 묘사한다. 이 부조리감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오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 경우에서 일어난다.

1. 많은 사람의 생활은 기계적이다. 그 자신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 의심을 일으키다. 부조리의 예고다.
2. 시간의 흐름에 대한 예리한 감각, 혹은 시간이 파괴력이라는 인식
3. 낯선 세계에 남겨져 있다는 감정, 나쁜 이유로 설명되는 세계라도 친근한 세계라고 까뮈는 말한다. 환상과 통찰력이 갑자기 제거된 세계에서 사람은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느낀다. 가장 격렬한 경우 이 소외감은 구토할 지경에 까지 이른다. 그때 돌, 나무처럼 이름에 의해 일상 '길들여진' 낯익은 사물들도 친근성을 탈취 당한다
4. 타자로부터의 단절감<sup>8)</sup>

이 부조리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며 분위기이다. 여기서 감정이란 주체의

7) 헬무트 쿤, 「부정된 신과 무」, 김종호 역(답구당, 1981), p.12.

8) 정명환, <실존주의와 문학>, 「21세기 이데올로기와 문학사상」(서울대출판부, 1979), p.90.

9) A. Hinchliffe, 「부조리문화」, 황동규 역(서울대출판부, 1978), p.44.

작용없이 주어지는 사실의 직접성과 그 사실이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sup>10)</sup> 이 감정은 곧 주체이며 그 주체를 통한 세계의 드러냄이다. 따라서 부조리감은 현 사실 즉 실존이다. 이는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해이며 느낌이다. 그 느낌은 순수한 기술에서 얻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이방인」 등 그의 소설이다. 그는 부조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로 자살하든지 신앙으로 비약하여 안주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그러나 그 두 길을 모두 부정하고 부조리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부조리를 솔직하게 승인하고 나서 그 부조리에 반항한다. 이 반항은 곧 부조리를 그대로 인식하는 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자유를 획득케 해준다. 그에게 있어서 자유란 선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쟁취하는 것이다.<sup>11)</sup>

그러나 부조리에 대한 참된 반응은 침묵이다. 그래서 부조리의 현상인 예술은 기술에 의해서 오직 부조리를 인식시킬 뿐이다. 그는 설명하지 않고 오직 침묵만이 진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는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인물들 사이에 의사 소통이 없으며, 그들이 고독하게 남아 있고, 언어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묘사만이 있을 뿐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휴머니스트로서 체계와 조직과 지배를 거부하고 정신의 자유를 옹호한다. 「이방인」에서 뫼르소는 결국 사형을 받게 되는 마지막 밤 행복감을 느낀다. 그것은 부조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부조리문학의 논리가 부조리를 현장의 체험을 통해서, 즉 '세계내 존재'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존적 현상학의 방향으로 이해된 세계의 열림을 기도하는 상상의 세계이며, 의식을 통해서 지각되는 존재태의 모습을 기술하는 것만이 참이라는 현상학의 문제이다. 그것은 경험으로 지각되는 느낌이며 세계 관련 의 양상이다. 사르트르는 「구토」를 통해서 점착성의 존재의 부조리성을, 까뮈는 「이방인」을 통해서 부조리감에서 오는 침묵을 기술한다. 이들의 소설은 무엇보다도 개체 인간의 주관적인 유희 속에서 세계에 대한 자아의 소아됨, 즉 무를 의식하는 관념소

10) F. Zimmerman, 「실존철학」, 이기상 역(서광사, 1989). p.160.

11) Camus, *L'homme revolte*(Gallinard, 1951), p.318.



설이며, 세계를 파악할 수 없는 황무지로 보는 소외 의식에서 비롯한 주관주의의 산물이다. 이러한 주관주의 때문에 퇴폐적인 소외의 극치라는 비판을 리얼리즘으로부터 받는다.

이들의 문학론은 제국주의 파시즘이 극을 달리는 2차대전을 전후하여 참여와 반항으로 전회된다. 사르트르가 앙가주망 문학론을 통해서 문학의 정치적 참여의 문제로 나아간다면 까뮈는 반항적 인간의 사회적 윤리의 문제로 나아간다.

사르트르의 앙가주망 문학론은 그가 마르크시즘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초기의 현상학적 문학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그의 앙가주망 문학론의 골자는 문학이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가 문학의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출발은 자유의 사상으로부터이다. 자유의 문제는 사르트르 이전부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져 왔으나 사르트르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인 2차 대전 이후엔 민주주의 사상과 함께 사회적 봄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란 논리적 체계에 의해서 규정되기보다 현실적인 문제이다. 사르트르는 그것을 형이상학적 존재론으로 규명하여 인간의 존재 특성으로 보완한다. 그는 인간이 자유롭게 존재하는 숙명을 지닌다는 명제를 만들어내어, 인간의 숙명으로서의 자유를 인간적 상황에 관련시켜 “세계내 존재”라는 현상학적 현실인식방식에서 상상하는 이미지를 이끌어내어 의식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자유 개념이 상황과의 끈을 부정이라는 험거운 관계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슐라르적 순수의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사라지고 있다. 그렇지만 바슐라르와는 달리 세계내 상황과의 관련으로 인해 문학의 사회적 기능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정치·사회 문제への 관심과 함께 부르주아 계급을 비판하게 되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앙가주망 문학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인간은 상황에 속박되어 있으며, 그 상황 속에서 자유를 행동과 실천에 의해 실현시켜야 하는 존재론적 선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황과 보다 깊은 관련을 가지는 인간의 자유는 현실이라는 문제를 중요시한다.

사르트르가 상황에 속박되어 있는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고 그 자유를 타

12) 박정자, 「비현실의 미학으로의 회귀」(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88), p.22.

자와의 연대로까지 발전하겠다는 관념을 가지며 창작에서는 실존사상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카뮈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론의 변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르트르가 마르크시즘과 가까워지고 있을 때 카뮈는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반항적 인간」으로 그의 사상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간 것이다. 부조리감에서 그의 문학 혹은 철학적 주제를 추구해 가다 그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론적 방법으로 모색된 것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억압된 인간의 상황에 대해 향하는 반항이다. 그는 부조리라는 인간의 운명적 존재의식에서 출발하여 반항이라는 출구를 갖는다.

부조리의 출구로서 반항이 설정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데카르트에 있어서 코기토와 같은 것으로 존재가치이다. 그는 부조리에 도전할 수 있는 자로서 지성인을 설정하는데 그 지성인은 논리적 범죄인 「이데올로기」적 범죄를 현실 세계의 부조리로 분석한다. 그것은 세계가 양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폭력이 휘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나 지성이 그 부조리와 맞서면 생명을 부정하는 니힐리즘, 즉 자살이나 살인을 하든지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성은 부조리 자체에서 방법적 회의를 이끌어 내 데카르트적 회의를 통해 반항이라는 존재 가치를 보여준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존재한다”라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부조리와 맞선다. 그것이 반항이다. 그리고 반항의 의식은 절망의 의식에서 나온다. 또한 개인의 존재의 위신을 위해서 지성인은 반항한다.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반항하는 자는 사회적 상황 속에 있으므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반항으로 확대하여 연대성을 갖는데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반항을 상정한다. 형이상학적 반항이든지 역사적 반항이든지 인간의 자유는 모든 개인의 자유를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카뮈는 혁명을 경계하며 인간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신을 거부하는데, 혁명은 역사를 전면 부정하기 때문에 니힐리즘이지만 반항은 인간에게 하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모든 인간이 공통된 위신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역사의 통일성을 이룩하게 한다. 그는 이러한 반항의 본질이 가장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한다. 그만큼 창조적이고 예술적이다. 카뮈는 혁명보다는 반항을, 개인과 소규모 집단의 반항을 지지하는데, 이는 불란서적 자유사상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초현실주의 예술의 반항은 그와 같은 예술적 반항의 좋은

예이다.

까뮈는 「반항적 인간」에 와서 사회적 윤리를 중요시하여 인간의 연대성을 통해서 자유를 보편화하려고 한다. 사르트르와의 논쟁에서도 사르트르가 마르크르시즘적 혁명을 주장한데 반해 까뮈는 제도나 전체주의적 역사라는 혁명을 거부하고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의 문제를 보다 중요시한다. 이는 그가 사르트르보다 문학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참여문학론을 통해 사르트르가 마르크르시즘으로 나아간 데 반해 까뮈는 '정오의 사상'으로 나아간다. 사르트르는 계급의 부정과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마르크르시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나 카뮈는 혁명이나 역사를 부정하는 현실 속의 사랑과 자유를 추구한다. 그렇지만 사르트르는 마르크르시스트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까뮈는 신앙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남긴다.

## (2) 실존주의와 모더니즘 및 리얼리즘과의 관계

실존주의의 기본성격은 모더니즘적 특징을 그 내적 속성으로 가지는 동시에 리얼리즘적 계기를 함께 포괄하고 있는 독특한 양상을 나타낸다.

실존주의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모더니즘론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근거는 리얼리즘을 그 대타적 개념으로 설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즉 존재론, 인간관, 역사관, 개인과 사회의 상관 관계, 의식과 물질의 관계 등에서 모더니즘은 리얼리즘과 여러면에서 다르며, 그러한 인식론과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상이함으로 인해 문학작품의 형상화 과정과 그 기법 등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실존주의 존재론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라 할 수 있는 '내던져진 존재'라는 하이데거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개인과 역사의 교섭을 부정하는 탈역사적 관념이며 환경의 객관성과 개인의 주관성의 상호교섭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것이 루카치의 설명이다.<sup>14)</sup> 그는 현대 부르조아 문학 내의 반리얼리즘적 지향을 분명히 하

13) Camus, 앞의 책, p.322.

14) 루카치, <모더니즘의 이데올로기>, 「현대리얼리즘론」, 황석천 역(열음사, 1986), pp. 21-5.

는 이러한 경향의 문학을 '모더니즘'문학이라고 묶고,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으로는 1) 존재론적 기반 혹은 인간관에 내재해 있는 비역사적·반사회적 특성, 2) 창작상의 원근법의 무시, 3) 현실에 대한 정태적 접근과 역사에 대한 무지, 4) 인간이 주체에 대해 무의미하다는 윤리적 콤플렉스, 왜곡된 인간형으로서의 괴짜와 사회적 범인의 제시라는 인물의 양극화, 6) 무기력하고 불안한 인간 묘사 등을 지적했다. 루카치는 20세기에 활동한 맑시스트 중에서도 모더니즘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입장을 표면했던 사람이어서 그의 모더니즘 이해 방식이 어떤 점에서는 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계기마저 한꺼번에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가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주로 거론하는 카프카나 버지니아 울프 등의 작품에서 이러한 특징이 고루 발견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존주의의 모더니즘적 성격은 실존주의 이론이 갖는 원론적인 성격에 잘 드러난다.

실존주의가 인간을 개체적 보편 혹은 보편적 단독자로 보는 것은 키에르케고르 이후 사르트르에까지 수용되고 있다. 실존주의에서 인간관계의 기본단위는 언제나 개인이다. 개인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움직이는 역사가 그 개인에게 반영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며 이러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의 행위는 바로 역사를 종합하는 사회적 실천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역사적 제약하에 있는 한 보편성을 갖지만 또 한편 부단히 주어진 역사를 초월하는 점에서는 유일한 개체, 즉 자기존재로서의 실존이다. 이런 주체의 창조성을 강조하면서 사르트르는 헤겔의 인식론적 낙관주의를 비판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구체적인 자기 의식을 진정한 의식으로 생각하는 헤겔과 달리 사르트르는 진정한 자기는 근원적인 자기존재, 타자에 대한 인식이전의 존재자체라고 설명한다. 즉, 그는 세계와의 상호작용으로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의식은 항상 자기의식, 즉 분열된 의식으로 존재해야 하는 원인을 자기자신 속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행한 의식이다. 그런데 헤겔이 의식을 다만 일차적으로 불행한 의식으로 파악한데 비해 사르트르는 의식을 본질적으로 불행한 의식으로 본다. 즉, 헤겔이 불행한 의식을 정신의 변증법적 자기전개 과정에 있어서 오직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데 반대하여 사르트르는 자기분열의 불안과 고뇌를 의식의 본성에 속하는 인간의 운명으로 보고 있다. 헤겔이 자기의식의 분열, 한 의식과 다른 의식의 분열, 정신과 자연의 분열이 모두 정신의 자기실현 과정에 있어서 통과하는 한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기에 이들 원초적 소외현상을 급기야는 극복되고야 말 것으로 낙관하는데 반해 사르트르는 자아와 타자 그리고 의식 존재와 사물존재 간의 넘어설 수 없는 존재의 분리를 주장한다.<sup>15)</sup> 이런 점에서 실존주의는 모더니즘의 주관적 보편성의 미적 범주와 상통한 바 있다.

모더니즘으로 전화된 실존주의는 그 성격의 또다른 측면으로 휴머니즘과 저항의 논리로 이어지는 리얼리즘적 계기를 내포하게 된다. 모더니즘적 성격이 주로 실존적 개인의 내향적 성격이 강화되어 내면의식에 대한 집요한 묘사와, 현실 사회로부터의 개인의 소외와 고립, 병리학적 증상 등을 그 현상적 특징으로 지니고 있는 반면에, 이 경우에는 부조리한 현실세계에 실존적 개인이 과감히 뛰어들어 세계의 부조리성에 맞서 저항하는 행동적 투기를 감행한다는 점에서 외향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고립된 인간집합이 어떻게 하여 공동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 과정을 사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은 본래 고립된 존재이며 사회는 이 고립된 인간의 집합이다. 이 고립된 개인의 집합은 유사시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공동행동을 한다. 이 집합이 집단으로 비약하는데는 환경의 지배에 의한 타성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모종의 위기가 개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불의의 사고에 직면했을 때 이제까지 남남으로 지내던 승객들이 갑자기 운명공동체로 전환한 다던가 무기력한 타성 속에서 서로 외면하고 살던 파리의 시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발하여 바스티유 감옥으로 가는 것과 같이 자기 존재와 자유의 부정인 불가능한 현실을 더 이상 불가능으로 좌시할 수 없을 때 집합을 집단으로 변혁시키는 계기가 된다.

맑스리스트들은 사르트르의 인간이해가 인간을 사회에서 고립시켜 파악한 다음 이를 인간의 사회성에 투사한 것은 그 추상적, 관념적 형이상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을 객관적 사회관계에서 설명하

15) 신오현, 「자유와 비극」(문학과 지성, 1985), pp.47-49.

고 인간이해를 완결지우는 것은 인간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다음 인간의 주체성만을 논의하는 것보다 탁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 집단의 선택이 일치되는 행복한 상황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르트르의 견해에는 양자가 어긋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둘째, 그의 이론에 의하면 극한 상황(전쟁, 투옥, 고문 등)에만 집단의 응집력이 생긴다 실존주의가 전후에 유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95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서 실존주의가 사라진 이유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휴머니즘 양가주망론은 그 자체에 있어 현실참여의 폭이 좁고 현실의 총체적 재현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전후의 현실상황 인식이 그 급작스러움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거의 불가능했던 시기에 어찌할 수 없는 차선택이었을 것이다. 이에 1950년대의 문학에서 리얼리즘의 역할을 이 이론들이 했고 이 양상은 결과적으로 실존주의를 분리 수용하는 양상을 낳는다. 다시 말해서 평론가들은 어느 사이언가 동일한 이론적 기반을 가진 사르트르의 초기 실존주의 철학과 휴머니즘론을 분리해서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대 평론가들은 어떻게 초기 실존주의가 후기에 이르러 현실참여쪽으로 나가는가, 양자간의 긴장관계를 파악함이 없이 휴머니즘 쪽을 찬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존의식이 휴머니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독과 불안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전도된 논리가 그것이다. 사실은 실존주의가 인간의 고독과 불안에 그치지 않고 어떤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혹은 개별자의 고독이란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휴머니즘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피상적 연결은 실상 당대 평론가들이 양자를 따로따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4. 한국 현대문학에 끼친 영향

우리 한국문학사에서 통념되는 1950년대의 문학은 전시문학 또는 6·25문학기로 치칭될 수 있으나, 이 시기는 허무의식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6·25동란시의 처절한 전화로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에 정착한 대다수 이 땅의

작가군은 주어진 기존가치를 거부한 채 홀로 절대자인 신 앞에 고립, 절망하는 양상으로 극한적인 개인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사회 구조의 다양화,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모로 우리의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 시기 대다수의 작가들은 그들이 체험하고 생존했던 암울한 시기의 극한 상황을 휴머니즘으로부터의 훈훈한 인정과 인간조건의 탐구, 사회적 부조리의 사실적 내지 우화적인 형상화, 인테리 소시민의 현실 묘사 등 실존주의 문학의 특성을 나름대로 구축해 보이려는 동기를 부여했다.

문예사조상 실존주의는 본래 자연적 법칙 등이 과학성과 객관성을 부인하며 개인적 실존 개념과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강조한다. 휴머니즘이며 자유의 철학으로서 실존주의는 인간이 자아의식적이고 책임적인 존재이기에 인간의 실존은 사물의 존재와 다르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인간은 미래적인 투사에 의해 현실 상황을 초극할 수 있는 초월성을 지닌다. 이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실존주의는 인간중심의 인간과학으로서 주관주의적인 개체로서의 주체성을 중시한 점에서 휴머니즘과 접맥된다 그러나 과학성을 원칙으로 경시한 점에서 현대의 후기 산업사회적 철학을 주도할 힘은 상실하였고 이중구조를 부합화되어가는 사회적 구조를 과학적으로 설명 할 수 없는 한계성에 부딪쳐 새로운 이념을 도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또 하나의 실존주의는 비교적 무의식의 세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고전적 정신분석학으로 대체시켜 역사의 주체를 당연히 책임 있는 인간실존 그 자체로 해석하지 만 사르트르는 반변증법적 역사적 유물론을 찬성한 실존주의적 마르크시스트였기에 이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사르트르는 철학논문을 집필하면서 문학작품에 인간존재의 조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정치에 참가하여 역사를 만들려고 폭넓게 활동하였다. 그는 정치에 관여하면서 실패로 인한 자기반성을 거듭하여 사색을 깊게 하며 행동을 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구원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작품과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그 자신의 소설에서 확증하려고 노력한 명제가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존재 이 유도 종극목적도 없는 부조리 한 세계에서 생겨난다는 것으로, 인간은 자기행위의 총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까뮈는 본인의 끈질긴 거부에도 불구하고 <실존적>이라는 일반적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 역시 이 세상에 내던져진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루어 나가느냐는 문제를 평생의 문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그 사상의 핵심은 불행한 세계 속에서 행복의 추구라는 테마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인식과 욕구는 변증법적으로 지양되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대립적인 것으로 남는다. 그리고 적어도 「전략」이전까지의 까뮈의 궤적은 이 양자의 바리에이션과 그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구해질 수 있다. <내>가 거부하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인식해야 하는 불행은 가난, 죽음, 전쟁, 시대로 확대되어 나간다. 한편 이 불행의 계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자연, 삶, 인간의 위신, 예술이다. 전자가 이른바 부조리이고 후자는 반항의 내용을 이룬다. 그리고 그 각각의 대립항을 그 긴장관계에서 파악하고 설명하려는 작품이 「표리」, 「시지프의 신화」, 「흑사병」 및 「반항적 인간」에 의해서 대표된다.

## 참고문헌

- 기획특집,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세계의문학, 1993. 9)  
 김동석, <실존주의> (신천지, 1948. 10)  
 김윤식, <사르트르와 우리세대> (현대문학, 1983. 2)  
 김현·김치수, 사르트르의 문학세계 (문학과지성사, 1989)  
 대담, <한국문학과 실존사상> (현대문학, 1990)  
 박이문, 문학 속의 철학 (일조각, 1993)  
 박인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신천지, 1948. 10)  
 박정자, <비현실 미학으로의 회귀> (서울대박사논문, 1988)  
 백낙청,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창작과비평사, 1988)  
 송옥역, <알베트 까뮈론> (사상계, 1953.12)  
 신오현, 자유와 비극 (문학과지성, 1985)  
 원형갑, <실존과 문학의 형이상학> (현대문학, 1959. 8)  
 이교창, <실존주의 문학의 내용과 형식> (문학예술, 1957. 4)  
 이환, <실존주의 문학의 철학적 기반> (문학예술, 1956. 11)  
 임현영, <실존주의와 1950년대 문학사상> (문학예술, 1987. 11)  
 장명환, 20세기 이데올로기와 문학사상 (서울대출판부, 1979)



- A. Hinchliffe, 황동규역, 부조리 문학 (서울대출판부, 1978)  
 Camus, L'homme revolte (Gallinard, 1951)  
 다니엘 벨, 김진욱역, 자본주의의 문학적 모순 (문학세계사, 1990)  
 F. Zimmerman, 이기상역, 실존철학 (서광사, 1989)  
 파울, <실존주의의 전망과 용단> (현대문학, 1955)  
 프란츠 하이네만, 황문수역, 실존문학 (문예출판사, 1990)  
 헬무트 쿤, 김종호역, 부정된 신과 무 (탐구당, 1981)  
 칼리니쿠스, 모더니스트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3)  
 루카치, 황석천역, <모더니즘의 이데올로기> 현대리얼리즘론 (열음사, 1986)  
 M. 버만,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4)  
 사르트르, 방곤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문예출판사, 1988)  
 사르트르, 양원달역, 존재와 무 (울유문화사, 1968)  
 사르트르, 원윤수역, 말 (삼성출판사, 1976)  
 S. de Beauvoir, 박이문역, <문학과 형이상학> (사상계, 1956. 12)